

추수 감사 주일 /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CHRIST THE KING SUNDAY

주후 2022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88 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통일 30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5 번 감사절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살전 (1 Thessalonians) 5:16-22</b>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찬양대
설 교 Sermon	<b>“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This Is God’s Will for You)</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231 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르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좇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여전히 죄된 소욕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참되고, 더욱 진실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역개정 **살전 5:16-18**)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NIV **1 Thessalonians 5:16-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0 (주일)	11/21 (월)	11/22 (화)	11/23 (수)	11/24 (목)	11/25 (금)	11/26 (토)
	대상15	대상16	대상17	대상18	대상19,20	대상21	대상22
본문	약2 암9 눅4	약3 욥1 눅5	약4 욥1 눅6	약5 욥2 눅7	벧전1 욥3 눅8	벧전2 욥4 눅9	벧전3 미1 눅1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23수 오후730)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일3:13-24)
토요 새벽기도회(11/26토 오전630)	“여호와께서 기도를 돌아보시며” (사102:12-28)

지난 주일(11/13)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3)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1-12)

우리의 신앙과 삶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기준 (New Standard)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1)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2)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한 3)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고 선언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결한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하고(출19:10), 2)둘째, 우리는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출19:11), 3)셋째, 우리는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출19:12). 즉, 우리가 성결함을 위해 결단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며,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준비된 기다림으로 기다리며, 허물어진 경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